**<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 쓴다>**

**전유정**

**타자화**

타자화란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 차이는 내가 규정한다.”는, 이른바 ‘조물주 의식이다. 이러한 자기 신격화는 민주주의와 예술의 적이다. 윤리적인 글의 핵심은 다루고자 하는 존재를 타자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방하지 못한다.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글은 ‘불쌍한 이’들에 대한 리포트가 아니라 글쓰기 과정에서 재현 주체와 재현 대상의 권력 관계를 규명하고, 다른 관계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차이**

의학적으로 자살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은 교정되어야 할 인지 장애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차이는 행이든 불행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다. 죽음의 반대는 호기심,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설렘이지 당위로서의 생명이 아니다.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생사의 갈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지라는 기대가 있는 사회다.

**싸가지 없는 진보**

여야 문제가 아니더라도 강자와 약자, 중심과 주변 사이에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 집권당에 비해 야당은 자원이 없다. 강자의 자원이 세속적인 것, 이를테면 돈과 미디어, 폭력(공권력)이라면, 약자는 보이는 자원만으로 승부가 어렵다. 약자의 유일한 자원은 약자라는 위치 자체에서 나오는 도덕과 논리(언어)다.

피아간의 장단점을 아는 것은 싸움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권력자만이 지닐 수 있는 자원을 욕망하면, 그들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못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의 부패나 비도덕보다 야당의 경우가 더 비판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자원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 진보 진영의 도덕성에 대해 비판을 하면, 저 쪽(보수 진영)은 더한데 왜 그러느냐? 는 반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은 레닌아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후 사용했다. 혁명의 영광도 잠시, 곧바로 시작된 내전과 외국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 인민들의 궁핍이 극에 달하자 레닌은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한다. 이럴 때 꼭 반발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 레닌은 1920년 <공산주의의 좌익소아병>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극좌파의 비현실주의를 비판한다.

이후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서 ‘실천의 다짐’으로 사용되었다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 좌절한 리버럴리스트들이 이 말을 자조적 의미로 쓰기 시작했다. 정치적 올바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군사, 경제, 문화 등등 전 영역에 걸친 레이건의 보수 정책에 지친 그들은 “넌 아직도 피시냐.”며 순진한 동료를 놀리는 용어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해 비판, 자부, 주장, 냉소가 뒤섞여 통용되는 듯하다.

사회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올바름은,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올바름은 없다. ‘PC’는 불가능한 개념이자 문제를 한 가지 원인으로 축소하는 환원주의의 산물이다. 책에 따르면, 환원론은 실천 없는 이들의 무의식적 위치 이동이다.

**글을 쓴다는 것**

이오덕은 글은 ‘짓는’ 것이 아니라 ‘쓰는’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은이(작가)’가 아니라 ‘글쓴이’다. 관념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고 자기 삶에 근거한 살아 있는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동의하지 않으랴. (=personalized)

**전쟁과 평화**

나는 테러, 전쟁, 내전, 분쟁의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정의의 ’전쟁;과 자살폭탄 ‘테러’의 위계는 누가 정하는가. 카슈미르, 코소보, 관타나모 지역 주민에게 국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전쟁과 평화는 같은 말이다. 평화의 어원은 침략자, 강자의 승리를 뜻한다. 공격 후 민사 작전, 다시 말해 점령 지역을 평정하여 반란을 진압한다는 뜻의 ‘pacify’에서 ‘peace’가 왔다. 우리말의 평화는 1889년 창립된 ‘일본평화회’의 기관지 <평화>에서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평화가 ‘peace’보다 낫다.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버림받은’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의 위로. 나는 그런 평화를 기원하고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다.

**법치**

국민국가에서 형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질서다. 그러나 ‘예/아니오’로 판단하기에는 삶은 너무 복잡하다. 개인의 의지, 선택, 동의 같은 자유주의 개념으로는 인간 행동을 제대로 재량할 수 없다.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너무 느슨하다. 간극을 매우는 것은 법 운용자들의 고뇌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검찰을 표기할 때, 우리는 ‘Prosecution Service’라고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판례를 표기할 때인데, 검찰이 로건이라는 사람을 고소할 경우 ‘People vs Logan’이라고 쓴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검사는 선출직으로서 민중, 유권자(people)를 대표한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스스로 민중을 대신한다는 각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 아닐까.

**고통**

자녀의 죽음, 전쟁에서의 생존, 홀로코스트, 집단 성폭력, 지진… 정말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고통만 주실까. 인간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는 어떤 조건에서만 맞는 말이다. 고난을 견디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의 상부상조와 이를 지지하는 사회. 이것이 정의다.

고통의 크기는 객관적이지 않다. 어떤 고통이 더 심각한 고통인지 비교하는 ‘불행 경쟁’은 논의를 왜곡한다. 고통의 정도는 고통의 세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반응 능력에 달려있다.

**‘밝음과 긍정’병**

이 책은 수줍음이 어떻게 병이 되었나(원제)를 추적한다. ‘밝고 긍정적인 인상’처럼 무조건 긍정되는 말도 드물다. 자본주의에 적합하 인간형과 기분(mood)이 있다. 체제는 적응형 인간을 정상으로 본다. 활기는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된 반면 우울함, 슬픔, 무기력은 부적응 ‘증상’이 되었다. 단조형 감정은 자본의 적이다. 자본은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글자 그대로 경기는 ‘부양’하는 것이다.

부끄러움, 겸손함, 신중함의 미덕은 후퇴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 확신에 차 있으며 사교성이 지나치게 좋은 인간 유형을 찬양하는 시대를 분석한다. 수줍음이 아니라 다행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울퉁불퉁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소심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일까.

즐거움 집착 현상은 사색이나 고뇌보다 건강, 출세, 스펙, 힐링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거나 그런 가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낙오자 취급한다. 무조건 당당형, 자기 도취,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치는 리더들이 많다. 막히는 도로에서, 아니 사회 도처에서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활기’가 넘친다.

세월호는 매일 충격의 강도를 갱신하지만 ‘세월호 피로감’은 절정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일을 안 하는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뜻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 표현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말로 피해 집단이 행복을 방해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피해자, 당신들 때문에 피곤하다고.

피로감 언설은 어두운 일은 잊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처럼 얘기한다. 신문이나 방송도 “따뜻한 소식, 즐거운 뉴스가 많은 세상을 희망해봅니다.”는 식의 언급을 자주 하는데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소식은 없다. 뉴스는 정치보다 당파적이다. 사람마다 이해관계, 입장, 위치에 따라 희비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괴로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태의 진전일 수 있다. 어떤 이에겐 평화로운 것이 어떤 이에겐 부정의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의 효과는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보다 “이 걱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고의 ‘틀’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보도할 것인가?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한국 사회가 싫어하는 인간형은 진보나 여성주의 이런 쪽(?)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문제 제기, 정확한 질문이 많은 사람도 공격적이라고 기피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모나거나 어두운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사유는 인간 본성, 세월호는 영원히 생각할 문제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상이다. 행복 강박을 버리고 비극을 허락하라. 불안 없는 영혼이 더 위험하다.

**분노에 대한 고찰**

분노의 시작은 억울함이다. 물론,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문제는 **“누구의 억울함인가?** **정당한 억울함인가?** 이다. 분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정의하다. 가해자의 피해의식이나 권력자의 분노는 규범이고, 약자의 억울한 감정만 분노로 간주된다.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대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다. ‘남성’은 이런 의문 자체가 없다. 자기 뜻은 분노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문제지만 그 고통은 ‘각자들’의 몫이다. 고통을 공감하는 최선의 방법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같은 정도의 보복’이 그것이다. (= 함무라비, 고조선법도 같은 맥락)

분노 표현 논쟁은 부차적이다. 분노의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누구의 어떤 분노인가.** 가진 자의 더 갖지 못한 분함. 이외의 모든 분노 표현은 격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진 자의 탐욕이 실현되는 것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

* 이 역시 ‘사고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자가 되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억울함을 호소할건데, 그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 이슈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옛것에 대한 고찰**

배병삼의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는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삼년상은 유교의 후진성, 야만성의 상징이었다.(= 옛것에 대한 인식) 슬픔과 속도주의는 상극이기 때문이다. 강박적인 발전 제일주의에서 슬픔은 지체와 과거 지향을 의미했다. 슬픔은 소모적이라는 통념,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재촉. 근대화를 위해 삼년상은 괴이함, 비합리성, 비효율로 인식되었다. 의례에 대한 낙인과 함께 슬픈 감정도 부정되었다.

유교,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파시즘도 이론은 훌륭하다. 문제는 권력으로서 지식이 약자에게 억압의 근거로 작동하는 현실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인간의 실행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법적 장치를 넘은 지 오래다. 범법 행위 처벌은 물론이고 머릿속 생각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조종자다.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의 자기 검열과 사회적 시선을 지도한다. **‘막걸리 보안법’**이 가장 유명한 사례다. 군사 정권 시절, 술자리 대화가 신고되어 구속된 서민들이 비일비재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소련 우주 과학이 미국보다 앞섰다, 김일성 만세!”같은 주사(?) 때문이었다.

**‘송아지 보안법’**도 있었다. 1964년 대전 방송국의 방송 대본이 문제였는데, 당시 검사의 기소 요지가 흥미롭다. “송아지를 애지중지한 가난한 농촌 가정이 있었는데 자본가가 하찮은 유희욕과 즉흥적 기분으로 송아지를 잔인하게 수탈하는 장면을 묘사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사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잘 알았던 모양이다.